

외국인 며느리를 둔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정 순 들**

(이화여자대학교)

박 현 주

(이화여자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외국인 며느리를 둔 시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기본척도로 하여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문항의 제거와 표본의 이상치 점검을 위한 문항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11 문항이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요인구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편견 및 차별감 지각’, ‘문화적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 ‘일상생활의 불편’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양호한 모형적합도를 보여주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검증하였으며 0.86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개발, 타당도, 신뢰도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27-B00446).

** 주저자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십여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국제 결혼으로 인하여 많은 다문화 가족이 생겨나면서 그들의 가족생활 및 육구 등이 정책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들도 급증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국제 결혼 이주여성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문화적인 적응과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갈등, 부부 관계 및 자녀양육과 관련되어 있다(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홍달아기·채옥희, 2006; 김민정, 2007; 박정숙·박옥임·김진희, 2007; 이용균, 2007; 이지영·이미진, 2009). 그러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성을 가족으로 맞은 한국인 가족 구성원들도 역시 다른 문화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변화를 경험하며 그로 인한 갈등과 위기를 경험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문제는 결혼이주여성의 입장뿐만 아니라 한국인 남편이나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함께 다루어야 하며, 혹은 다문화 가족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접근하여야 한다(장진경·전종미·신유경, 2009; 이지영·이미진, 2009; 정순돌·박현주·오보람, 2010; 홍달아기·채옥희·이남주, 2010; Roer-strier and Ezra, 2006). 특히 한국의 시부모들은 아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접해왔던 문화와 완전히 이질적일 수 있는 생소한 문화에 노출된다. 그들은 언어적인 장벽과 의사소통의 문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또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가족규범과 가치관을 지닌 외국인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혼란을 겪는다(홍달아기·채옥희, 2006; 구차순, 2007; 정순돌·이현주, 2010; 이지영·이미진,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성과 다문화 가족을 다루는 선행연구에서 외국인 여성과 시부모 사이의 갈등 및 적응은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한건수, 2006; 홍달아기 외,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여성을 며느리로 두게 된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부재하다.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된 도구들(Roytburd, 2005; Wei, Heppner, Mallen, and Ku; 2007; Jibeen and Khalid, 2010)은 주로 타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이민자들이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결혼 이민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측정되었다. 즉 결혼 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도구들 역시 주류 사회에 편입되어 주류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측정된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도구들은 Sandhu와 Asrabadi(1994)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ASSIS;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Mumford(1998)의 문화충격 척도(The Measurement of Cultural Shock)등이 있다(김오남, 2007; 권복순, 2009; 양옥경·송민경·임세와, 2009; 임혁, 2010). 외국인 며느리를 둔 문화적응이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양방향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민자들을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가족구성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는 부재하였던 것이다. 외국인 며느리를 둔 시부모를 대상으로 시부모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연구한 연구결과들(조한숙, 2009;

정순돌·박현주·이혜정, 2010) 역시 기존의 도구들을 사용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함으로써 정확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주류사회에서 외국인을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있고 타당성있는 도구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로 다른 문화에 의한 갈등과 적응의 어려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은 다문화 가족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들의 국제결혼으로 외국인 며느리를 가족으로 맞이한 시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1)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Redfield, Linton와 Herskovits(1936)에 의하여 처음으로 문화적 근원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 간에 지속적인 접촉을 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정의되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on stress)는 문화적응의 경험 안에서 비롯되는 사건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을 의미하며, 문화적응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념화한 것이다(Berry, 2006; Jibeen and Khalid, 2010; Torres, 2010). Berry, Kim, Minde와 Mok(1987)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양상을 포함하는 낮은 수준의 정신건강 상태, 소외감, 정체성 혼란 등의 일련의 스트레스로 설명했다. 문화적응의 개념은 이제까지 이주자의 주류 사회의 적응과 관련하여 널리 연구되어 온 개념이다. Berry et al.(1987)은 문화적응을 둘 혹은 그 이상의 문화가 서로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결국 한 쪽 혹은 양쪽 집단이 경험하게 되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Smokowski, Rose and Bacallao, 2008).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자를 받아들인 주류 사회의 구성원 역시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이주여성의 인권과 적응 문제에 만 관심을 두어, 피해자로서의 이주여성이 주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겪게 되는 어려움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타문화에서 생활하다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장운정, 2007; 정순돌·이현주, 2010; 조한숙, 2009; 정순돌 외, 2010).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시부모-며느리 관계의 특성 상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사이에서도 역시 밀접한 관계의 유지와 높은 상호작용이 요구되지만, 서로 다른 문화적 사고방식 및 가치관의 차이로 양쪽 모두 어려움을 겪는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시부모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부모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규범과 가치관에 따른 며느리와 아내의 역할, 혹은 시부모와의 관계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며느리와의 관계형성이 원만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느끼며 때로는 답답함을 호소한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들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가치나 사고방식, 또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한건수, 2006; 장진경 외, 2009).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는 외국인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생활 습관이나 가사일 및 자녀양육 방식의 차이로 인한 긴장감을 호소하기도 하며, 상호이해의 부족으로 며느리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사회적 편견 혹은 차별에서 발생하는 불안감과 우려 등을 경험한다(이지영·이미진, 2009; 장진경 외, 2009; 정순돌 외, 2010). 서로 다른 문화의 접촉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화적응 과정이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방향적인 것이라는 시각에서, 시부모와 이주여성 모두 문화적응 과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의 시부모가 경험하는 이와 같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구에서는 이론적인 모델과 비교연구 틀을 이용한 여러 경험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Berry et al., 1987; Oh, Koeske and Sales, 2002; Chiriboga, Jang, Banks and Kim, 2007).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민자, 유학생, 난민, 라틴계나 아시아계의 특정 민족 등의 다양한 문화적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 등과 관련된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다루어 왔다 (Berry et al., 1987; Miranda and Matheny, 2000; Oh et al., 2002; Chiriboga et al., 2007; Jibeem and Khalid, 2010; Torres, 2010).

선행연구에 의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원(acculturation stressor)에 의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발생하는데, 기혼나 주택 또는 안전과 관련된 물리적인(physical) 측면, 고립감과 향수병과 관련된 사회적(social) 원인, 가치관 차이와 인종차별과 관련된 문화적인(cultural) 원인, 언어나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된 기능적인(functional) 원인 등이 있다고 한다(Jibeem and Khalid, 2010). 즉,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정체감의 위기, 무기력감, 소외감, 열등감,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Rutter and Tienda, 2005).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단순히 스트레스 수준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 결과적으로 문화적응 과정에 있는 대상들의 정신건강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심리적 디스트레스, 특히 우울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예측원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Hovey, 2000; Mui and Kang, 2006; Worbel, Ferrang and Hymes, 2009).

2)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그 동안 개발된 주요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살펴보면, Padilla(1986)와 Mena, Padilla and Maldonado(1987)의 'SAFE(social, attitudinal, familial, environmental)', Rodriguez, Myer, Mira, Flores와 Garcia-Hernandez(2002)의 'Multi-dimensional Acculturation Stress Inventory(MASI)', Sandhu와 Asrabadi(1994)의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ASSIS)' 등이 있다. 우선, 첫째로 Padilla(1986)에 의하여 처음 개발된 SAFE 척도는 사회적(social), 태도적(attitudinal), 가족적(familial), 환경적(environmental) 상황과 관련된 스트레스 및 차별감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하며, 60문항이었던 원척도는 Mena 등(1987)에 의하여 24문항으로 단축되어 사용되고 있다(Fuertes and Westbrook, 1996; Hovey, 2000; Miranda and Matheny, 2000). 이민 온 어린 대학생들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이 척도는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정에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Fuertes and Westbrook, 1996; Hovey and King, 1996; Hovey, 2000; Miranda and Matheny, 2000). 둘째, SAFE 이외에도 Multi-dimensional Acculturation Stress Inventory(MASI; Rodriguez et al., 2002)가 있는데, 이는 문화적응 과정 중의 개인에게 축적되는 압박감(pressure)을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하고 있다. 이 척도는 원문화와 타문화 언어구사능력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타문화 적응 및 원문화 유지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다루는 네 가지 차원의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미국에 이주한 멕시코계 성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처음 개발된 이 척도는 최근에는 라틴계와 아랍계 성인의 언어구사 능력과 문화적응 및 유지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Wrobel et al., 2009; Torres, 2010). 셋째, Sandhu와 Asrabadi(1994)는 라틴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차별감, 적대감, 향수, 문화적 충격 등의 차원을 포함하는 36문항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ASSIS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SAFE 척도와 비슷하지만 언어능력과 관련된 차원을 제외시키고 차별과 적대감 등의 사회심리적인 차원의 스트레스를 강조하고 있는 척도로 알려져 있다(Jibeem and Khalid, 2010). 또한 이 척도는 라틴계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 및 민족 집단을 대상으로 꾸준히 사용되어 왔으며(Constantine, Okazaki and Utsey, 2004; Wei et al., 2007), Oh et al.(2002)에 의하여 미국에 이주한 한국인 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ASSIS는 초기에 어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척도이기도 한데, 이제까지 인종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많은 연구에 적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살펴본 국내 연구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김오남, 2006; 권복순, 2009; 양옥경 외, 2009; 정순돌 외, 2010).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은 이처럼 다양한 인종 및 민족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다수의 연구들이 주로 어린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Roytburd, 2005; Wei et al., 2007; Jibeem and Khalid, 2010). 그러나 이제까지 어린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과 적용이 폭넓게 연구되어온 것에 비하여, 문화 적응 과정에서 보다 취약하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노인 대상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아직 개발된 바 없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과 연구에의 적용은 주류 사회로 유입된 이주자의 입장에서만 이루어져 왔으며, 타문화를 받아들인 입장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Sandhu와 Asrabadi(1994)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참고로 하여 다문화 가족의 시부모에게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2007년과 2008년에 실시된 두 차례의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다문화가족의 시부모 266명의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우선 1차 조사는 2007년 7월 경남 문경시의 다문화 가족의 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문경시의 협조로 문경시에 거주중인 이주여성의 명단과 한글교실에 참여중인 이주여성의 명단을 토대로 시부모가 생존해 있는 가구를 선별하여 개별 방문하였고 1:1 면접을 통하여 총 73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2차 조사는 예비조사를 포함하여 2008년 5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전년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를 토대로 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서 서울경기지역 다문화 가족의 시부모 91명과 전라남도 지역의 다문화 가족의 시부모 102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서울경기지역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 복지관, 외국인 관련 시민단체 등 이주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관의 프로그램 참여중이며 조사에 응하기로 동의한 이주여성에게 시부모용 설문지를 배부하여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서울지역 조사가 직접면접이 아닌 설문지 배부형식으로 진행된 이유는 지방의 '군' 단위 조사지역에 비하여 설문조사 및 가정방문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연구대상자에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고흥군, 무안군, 보성군, 나주군, 목포시의 각 군청과 시청의 사회복지과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각 지역에 거주중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명단을 토대로 시부모가 한 쪽이라도 생존해 있는 가구를 선별한 후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동의를 구한 뒤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2차에 걸친 조사과정을 거쳐 총 266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 왔던 Sandhu와 Asrabadi(1994)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기본척도로 하여 이루어졌다. 7가지 하위차원의 36문항 중에서 다문화 가족의 시부모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시킨 후 16문항의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for International Student(ASSIS)'는 다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가 언어능력과 관계된 스트레스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하여, 지각적(perceptual)이고 관계적인(relational) 측면과 같이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보다 강조하고 있어 이주여성의 가족에게 적용하기에 알맞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척도는 이승중(1995)에 의하여 한국어로 번안되어 처음 사용되었으며, 지금까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에서 빈번하게 사

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연구 대상인 시부모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Sandhu와 Asrabadi (1994)의 척도는 차별과 편견, 보상과 대우, 동등한 기회와 관련된 '지각된 차별감' 영역,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낯선 환경의 생활, 가족의 그리움과 관련된 '향수병' 영역, 문화와 가치관 인정, 직간접적인 적대감과 관련된 '지각된 적대감' 영역, 신변위협과 안전, 대인기피, 낮은 자아상과 관련된 '두려움' 영역, 음식, 문화적응력, 언어, 압박감과 관련된 '문화충격' 영역, 가족과의 분리, 체류형태와 관련된 '죄책감' 영역, 기타 영역 등의 7가지 하위 차원의 총 3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이 척도에서 '향수병' (4문항)과 '죄책감' (2문항)의 두 영역을 모두 제외하였고 나머지 영역들에서 연구 대상에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문항들을 제외시킨 뒤, 총 16문항을 선정하여 시부모를 위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구성된 예비 척도는 차별감, 적대감, 문화 차이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평가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이처럼 기존의 척도를 재구성하여 개발한 척도를 토대로 하여 문항의 제거와 표본의 이상치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기술 분석을 통한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첫째, 평균과 분산을 산출한 뒤 문항의 편포도와 표준화 점수를 구하여 제거할 문항이나 표본에 이상치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둘째, 요인분석이 가능한 최소한의 표본수를 확인하고 척도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결측치를 제거하였다. 셋째, 전체와 개별문항 간 그리고 개별 문항 간의 상관관계 등을 검토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상관을 보이는지 검토하였다. 문항 분석 다음으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요인 구성을 살펴보았다. 척도의 구성요인을 살펴본 후에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 (SPSS 18.0 + AMOS 18)이 사용되었다.

4.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대상 266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외국인 며느리를 두고 있는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22.9%, 여성이 77.1%였으며 평균 연령은 70.46세였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전체의 52.1%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전체의 47.9%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들에게 외국인 며

느리와의 동거유무를 조사한 결과, 약 80%가 며느리와 동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보통이다로 응답한 경우(50.4%)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1.9%의 조사대상자가 비교적 나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N(%)
성별	남성	56(22.9)
	여성	189(77.1)
연령	50세 - 59세	6(2.5)
	60세 - 69세	108(44.6)
	70세 - 79세	104(43.0)
	80세 이상	24(9.9)
	평균(SD)	70.46세
배우자유무	배우자 있음	126(52.1)
	배우자 없음	116(47.9)
며느리와의 동거여부	동거	195(79.5)
	비동거	50(20.5)
경제 상태	나쁘다	21(8.7)
	비교적 나쁘다	53(21.9)
	보통이다	122(50.4)
	비교적 좋다	40(16.5)
	좋다	6(2.5)
	평균(SD)	2.82

2) 문항 분석

외국인 며느리를 둔 시부모의 문화 적응과 관련된 스트레스 척도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36문항 중에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연구 대상에 적절하지 않은 문항들을 제외시킨 뒤 16문항을 채택하여 구성하였다. 제외된 문항은 새로운 사회에 유입된 이주자의 입장에서만 응답 가능한 문항, 즉 향수병과 관련된 문항 혹은 가족과의 분리, 체류형태와 관련된 문항 등 시부모의 문화적응과 관련이 적어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선별된 16개의 예비 문항의 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266명의 시부모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각 항목별로 기술 분석을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정규 분포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첨도(skewness)와 왜도(kurtosis) 및 이상치(outlier)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문항의 첨도는 0.571~1.966, 왜도는 -1.015~3.715의 분포를 보였다. 이 수치들이 ±1 이상이면 그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편포도의 해석에 대해서는 크게 합의된 바가 없으며 궁극적으로 연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홍두승, 2003). 뿐만 아니라 척도 타당화 분석에 사용되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적용가능한 정상 분포의 조건은 -2<왜도<2, -4<첨도<4로 보고 있으므로(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편포도 이상에

의해 제거 대상이 된 문항은 없었다. 또한 각 문항의 표준화 점수를 이용하여 이상치를 검토하였는데, 표본수가 80 이상인 경우에 표준화 점수가 3 이상인 경우 이상치로 판단하므로(김계수, 2007; Devellis, 2003), 이에 따라 11명의 이상치를 표본에서 제거하였다.

〈표 2〉 문항별 분석

문항	평균	sd	편포도	
			왜도	첨도
1) 새로운 음식들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2.35	1.172	.571	-.595
2) 나는 외국인 며느리를 둔 이후, 주위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르게 취급된다.	1.70	0.924	1.435	1.676
3) 나는 며느리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려면 긴장된다.	2.11	1.195	.851	-.356
4) 나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심하다.	2.21	1.208	.680	-.555
5) 다른 사람은 외국인 며느리를 두고 있는 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1.78	1.005	1.170	.500
6) 나와 같이 외국인 며느리를 둔 사람들을 열등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	2.14	1.325	.836	-.579
7) 외국인 며느리를 둔 이후 여러 가지 고통들이 나에게 있다.	1.97	1.113	.826	-.540
8) 외국인 며느리가 생긴 이후 불공평한 취급을 받고 있는 듯하다.	1.68	0.957	1.375	1.191
9) 외국인 며느리가 나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지 않을 때 속이 상한다.	2.34	1.253	.457	-1.015
10) 외국인 며느리를 두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	1.47	0.778	1.838	3.273
11) 외국인 며느리는 나의 문화적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지 않는다.	1.99	1.106	.833	-.359
12) 며느리의 새로운 문화적 가치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2.15	1.178	.692	-.647
13) 사람들은 외국인 며느리를 둔 나에 대해 미워함을 행동으로 나타낸다.	1.42	0.706	1.861	3.715
14) 내가 외국인 며느리를 두게 됨으로 인해 이 사회 안에서 나의 신분(지위)은 낮다고 느낀다.	1.52	0.840	1.623	1.969
15) 나는 외국인 며느리가 생긴 후 두려움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다.	1.54	0.884	1.744	2.513
16) 나는 사람들이 내가 외국인 며느리를 두었기 때문에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낀다.	1.42	0.775	1.966	3.557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 척도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6명을 다시 분석에서 제외시켰으며 최종적으로 25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표본수는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표본수인 100을 충족시키므로(이학진·임지훈, 2005), 척도의 타당도 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표본수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전체와 개별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각 문항들이 동일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전체와 개별 문항 간의 상관관계가 0.3 이하인 문항은 동일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다른 문항들과 내용적으로 다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최혜경·백지은·서선영, 2005; 이민홍, 2009; Roobina, 1990). 그 결과는 <표 3>과 같이 전체와 0.3 이하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개별 문항은 없었다. 또한 서로 중복되는 의미를 가지는 문항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척도의 개별 문항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문항 제거의 기준(Stevens, 1992)으로 제시되는 ± 0.8이 넘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Devellis(2003)는 척도 구성을 위한 개별 문항을 평가할 때에 있어서 전체-개별문항 또는 개별문항 간 상관관계 이외에 개별 문항의 평균과 분산을 살펴보는 것이 문항을 선별하는데 중요한 과정을 강조한다. 평균이 점수 범위의 극단에 가깝다면 그 문항의 구성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점수 범위의 중심에 가까운 평균이 바람직하며, 또한 모든 개인들이 거의 동일한 응답을 하고 있는 극단적인 문항의 경우에는 측정되어지는 차원들을 구별해 낼 수 없을뿐더러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올바르게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분산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미경과 이규미(2009)는 문항 응답의 분포에서 하나의 응답범주에 65% 이상 응답된 경우를 문항 제거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평균과 분산을 보이면서 동시에 개별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5개의 문항을 예비 문항에서 제외하여 총 11개의 문항을 선별하였다.

<표 3>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전체
1	1																
2	.309***	1															
3	.361***	.295***	1														
4	.290***	.203***	.242***	1													
5	.346***	.521***	.398***	.259***	1												
6	.183**	.425***	.210**	.227**	.495***	1											
7	.381***	.448***	.421***	.178**	.467***	.302***	1										
8	.347***	.568***	.380***	.278***	.681***	.500***	.637***	1									
9	.245***	.367***	.284***	.222**	.368***	.419***	.522***	.463***	1								
10	.194***	.527***	.320***	.251***	.463***	.302***	.436***	.567***	.314***	1							
11	.302***	.358***	.272***	.201**	.414***	.238***	.511***	.486***	.590***	.493***	1						
12	.455***	.302***	.270***	.258***	.275***	.155*	.486***	.357***	.474***	.291***	.559***	1					
13	.265***	.601***	.318***	.258***	.542***	.410***	.406***	.626***	.288***	.660***	.416***	.339***	1				
14	.221***	.540***	.305***	.298***	.547***	.462***	.398***	.644***	.287***	.709***	.449***	.357***	.785***	1			
15	.238***	.448***	.254***	.224***	.427***	.466***	.407***	.593***	.367***	.520***	.424***	.406***	.614***	.698***	1		
16	.245***	.512***	.346***	.237***	.518***	.442***	.429***	.650***	.352***	.632***	.470***	.333***	.779***	.767***	.768***	1	
전체	.541***	.672***	.554***	.457***	.718***	.597***	.717***	.806***	.656***	.672***	.686***	.623***	.727***	.744***	.702***	.748***	1

*p < .05 **p < .01 ***p < .001

3)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의 목적은 문항의 수를 줄여 척도를 설명하는 분산을 최대화하거나 척도가 어떠한 잠재적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밝히기 위한 것이다(Netermeyer, Bearden and Sharma, 2003).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머느리를 둔 시부모의 문화적응 관련 스트레스의 구성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 분석을 통해 선별된 11개의 문항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요인분석이 가능한 자료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과 Bartlett's 검정 지표를 검토하였고(김계수, 2007), KMO 값은 0.873, Bartlett 구형성 검정값은 1024.665(p<0.001)로 탐색적 요인 분석이 가능한 자료임이 나타났다. 분석 방법은 직교회전 중에서 varimax 회전 방식을 사용하였고 결과는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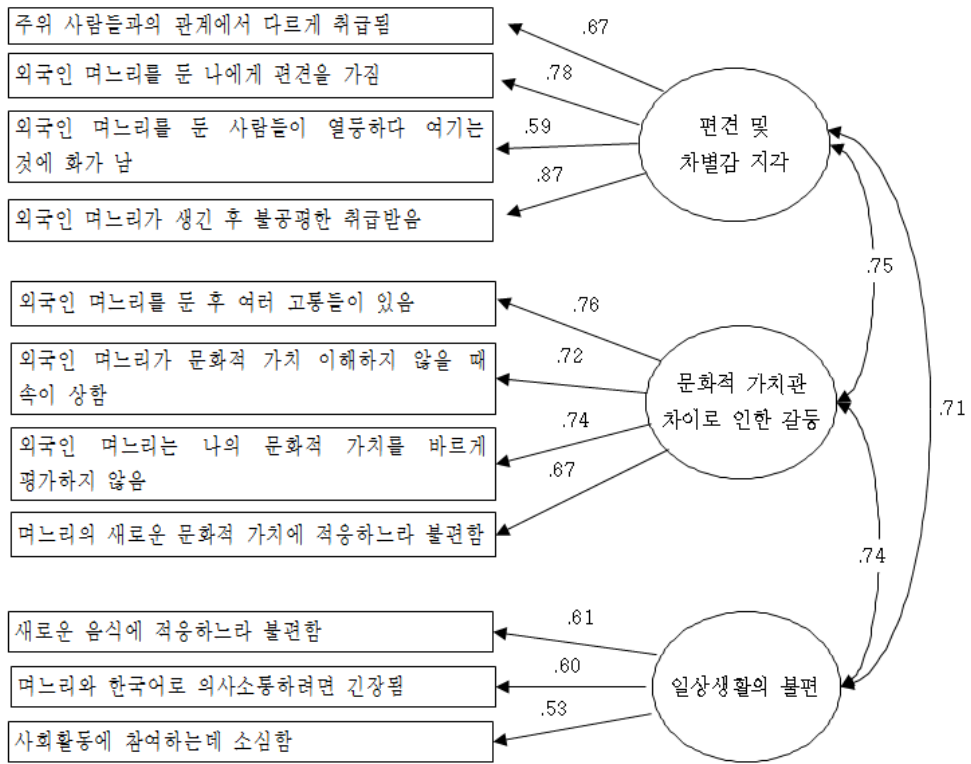
<표 4> 척도의 요인계수 행렬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2)	.675		
5)	.751		
6)	.793		
8)	.736		
7)		.629	
9)		.716	
11)		.778	
12)		.809	
1)			.593
3)			.707
4)			.721
고유치	4.770	1.190	1.015
설명변량	24.325	23.137	15.949
누적변량	24.325	47.462	63.411
내적 신뢰도	0.797	0.813	0.585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한 11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아이젠값 1.0이상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됨이 나타났으며 3개의 요인이 전체 변량의 63.41%를 설명하였다. 11개의 문항 중에서 전체 변량의 24.32%를 설명하는 요인 1은 문항2, 문항5, 문항6, 문항8로 구성되었고 이는 시부모가 지각하는 차별감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전체 변량의 23.14%를 설명하는 요인 2는 문항 7, 문항9, 문항11, 문항12로 구성되었고 이는 문화적인 가치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과 관련된 문항들이다. 마지막으로 요인 3은 문항1, 문항3, 문항4로 구성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지각하게 되는 불편함과 관련된 문항들이다. 이 문항들은 식생활과 의사소통에서의 불편과 타인의 편견을 의식하여 사회활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과 관련된다. 결국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 1은 '편견 및 차별감 지각',

요인 2는 '문화적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 요인 3은 '일상생활의 불편' 의 세 가지 차원의 척도를 제시할 수 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구성된 요인 구조에 따라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와 각 하위 영역의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0.85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차원별로는 요인 1은 0.797, 요인 2는 0.813, 요인 3은 0.5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델

4) 확인적 요인분석 : 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3요인 구조 모형을 검증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1개의 측정문항이 3개의 잠재적인 요인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문항을 해당 요인에만 부하되도록 하였다. 오차들 사이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며 3개의 요인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도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상관계수와 회귀계수는 모두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표 5와 같다.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X^2 는 111.723으로 나타났으나 표본의 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의미있는 지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김계수, 2007; 안정신 ·

강인·김윤정, 2009). GFI와 AGFI는 각각 0.926, 0.880으로 적합한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적합도를 판정하는데 선호되고 있는 지수인 CFI와 IFI값도 0.929, 0.904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선호하는 적합도 지수인 TLI의 경우에도 0.904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임을 보여준다. 단, RMSEA의 경우에 보통 수준의 적합도인 0.08을 약간 초과하는 0.084를 보여주었으나 전체적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볼 때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모형 적합도

적합도지수	X^2	TLI	NFI	CFI	GFI	AGFI	RMSEA
	111.73	.904	.893	.928	.926	.880	.084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외국인 며느리를 둔 다문화 가족의 시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척도 개발을 위하여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였던 기존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Sandhu and Asrabadi, 1994)을 참고로 하여 시부모에게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최종적으로 11문항이 선택되었고, '편견 및 차별감 지각', '문화적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 '일상생활의 불편'의 세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가 제시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타문화를 수용해 온 역사적인 경험이 짧고 단일민족의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온 한국 사회의 특성상(박경동, 2006), 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한국 가족들도 문화적 차이로 인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제까지 이주해 온 집단을 중심으로 측정되어 오던 개념이었지만, 이처럼 문화적응 과정이 양방향적이라는 논의에 근거하여 이주여성이 아닌, 이주여성을 받아들인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해 보았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척도의 구성과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원척도에서 기타 영역에 속했던 문항들과 차별감에 관련된 문항들로 '편견 및 차별감의 지각' 요인이 구성되었고, 이주자에게 적용되던 적대감 관련 스트레스들은 의미의 중복이나 시부모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으로 분류되어 삭제되었다. 또한 원척도에서 기타 영역에 속했던 문항들과 문화충격 문항들로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 요인과 '일상생활의 불편' 요인이 구성되면서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구성된 척도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외국인 여성을 며느리로 둔 다문화 가족의 시부모가 경험하는 갈등과 스트레스의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다문화 가족 내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

등 및 스트레스를 이주여성만의 시각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 즉 시부모의 시각을 보여줄 수 있어 가족 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거 확률이 높으며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시부모와 며느리의 갈등이 다문화 가족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시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측정은 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해왔던 편향된 관점을 극복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문화적응이 양방향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주자를 받아들인 입장에서 받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문화적응은 복잡한 심리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사정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문화적응 과정에 비교적 취약한 노인들이 외국인 며느리를 두게 되면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그들이 직면한 가족 내 위기 극복과 건강한 적응을 도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개발된 척도를 이용한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갈등 및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개입 방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척도의 활용은 추후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한 대처 기술 등에 관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다문화 가족 교육 및 상담 등의 실천 개입의 효과성 논의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이러한 의의와 함께 향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주자를 받아들인 입장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주자 대상의 기존 척도를 이주자를 받아들인 가족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이들 가족을 대상으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특히 결혼 이민자의 시부모 표본을 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표본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한 척도에는 한국 사회와 가족의 모습 등이 좀 더 반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문항 개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차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 319-360.
- 권복순. 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대구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1(5): 5-32.
- 김계수. 2007. 『Amos 7.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나래.
- 김민정. 2007. "한국 가족의 변화와 지방 사회의 필리핀 아내". 『페미니즘연구』 7(2): 213-248.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성.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 김오남. 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2(3): 47-73.

- 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경동, 2006. “다문화 가족 형성과 갈등에 대한 연구-한국의 광주, 전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18: 140-174.
- 박정숙·박옥임·김진희,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1-12.
- 안정신·강인·김윤정, 2009. “한국 중노년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13(4): 225-245.
- 양옥경·송민경·임세와, 2009.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37-168.
- 원영희, 2005. “재미교포 노인의 문화적응 및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 『일립논총』 11: 151-178.
- 이민홍, 2009. “한국형 부양자반응척도(Caregiver Reaction Assessment)의 구성타당화 연구”. 『한국노년학』 29(2): 407-424.
- 이승중,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용균, 200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 보은과 양평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 10(2): 35-51.
- 이지영·이미진, 2009. “결혼이민자 여성의 고부관계와 수발의식”. 『노인복지연구』 46: 127-156.
- 이학진·임지훈, 2005. 『SPSS 12.0 매뉴얼』 서울: 법문사.
- 임혁,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4): 189-221.
- 장운정, 2007.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진경·전종미·신유경, 2009. “ABCX모델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의 디스트레스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4): 103-116.
- 정미경·이규미, 2009. “한국노인 상실감 척도 구성 및 타당도 검증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21(2): 397-412.
- 정순돌·박현주·오보람, 2010.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가 지각하는 관계의 질과 의사소통의 일치정도에 근거한 관계유형”. 『한국사회복지학회』 62(1): 133-153.
- 정순돌·박현주·이혜정, 2010.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가 지각하는 외국인 며느리와의 관계 및 그 영향요인”. 『한국가족사회복지학』 29: 29-53.
- 정순돌·이현주, 2010. “외국인며느리를 둔 시어머니의 적응과정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 28: 5-36.
- 조한숙, 2009. “농촌노인과 외국인며느리의 고부관계만족도 및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최혜경·백지은·서선영, 2005. “노인들의 인식을 통한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의 개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10.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홍달아기·채옥희, 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지』 15(5): 729-741.
- 홍달아기·채옥희·이남주, 2010.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한국생활

- 과학회지』 19(1): 75-89.
- 홍두승. 2003. 『사회조사분석 제 3판』. 다산출판.
- Berry, J. W., U. Kim., T. Minde., and D. Mok.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on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491-511.
- Berry, J. W. 2006. "Contexts of acculturation". pp. 27-42. in *The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edited by D. L. Sam and J. W. Ber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iriboga, D. A., Y. Jang., S. Banks., and G. Kim. 2007. "Acculturation and its effect on depressive symptom structure in a sample of Mexican american elder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9(1): 83-100.
- Constantine, M. G., S. Okazaki., and S. O. Utsey. 2004. "Self-concealment, social self-efficacy,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in African, Asian, and Latin American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4: 230 - 241.
- Devellis, R. F. 2003. *Scale development : theory and applications*, 2nd edition. Thousandoaks, CA: Sage publications.
- Fuertes, J. N., and F. D. Westbrook. 1996. "Using the 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S. A. F. E.) acculturation stress scale to assess the adjustment needs of Hispanic college students". *Measurement & Evaluation in Counseling & Development*, 29: 67-76.
- Hovey, J. D. 2000.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entral American immigrant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30(2): 125-139.
- Hovey, J. D., and C. A. King. 1997. "Suicidality among acculturating Mexican-Americans: Current knowledge and directions for research".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7: 92-103.
- Hovey, J. D., and C. A. King.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5(9): 1183-92.
- Jibeen, T. and R. Khalid. 201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multidimensional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Pakistani immigrants in Toronto,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4: 233-243.
- Mena, F. J., A. M. Padilla., and M. Maldonado. 1987. "Acculturative stress and specific coping strategies among immigrant and later generation college stud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9(2): 207-225.
- Miranda, A. O. and K. B. Matheny. 2000. "Socio-psychological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Latino Adult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2(4): 306-317.
- Mui, A. C., and S. Y. Kang. 2006.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on among Asian Immigrant Elders". *Social Work* 51(3): 243-256.
- Mumford, D. B. 1998. "The measurement of culture shock".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3(4):149-154.
- Netemeyer, R. G., W. O. Bearden., and S. Sharma. 2003. *Scaling procedures: issues and applications*. SAGE Publication.
- Oh, Y., G. F. Koeske., and E. Sales. 2002.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4): 511-526.

- Padilla, A. M. 1986. "Acculturation and stress among immigrants and later-generation individuals", pp. 187-223, in *The quality of urban life*, edited by F. Dieter, New York: Walter de Gruyter.
- Redfield, R., R. Linton, and M. J. Herskovits.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1): 149-152.
- Rodriguez, N., H. F. Myers., C. B. Mira., T. Flores., and L. Garcia-Hernandez. 2002. "Development of the multidimensional acculturative stress inventory for adults of Mexican origin". *Psychological Assessment* 14(4): 451-461.
- Roer-Strier, D. and D. Ezra. 2006. "Intermarriage between western women and Palestinian men: Multidirectional adaptation proc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8(1): 41-54.
- Roobina, O. 1990.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celebrity". *Journal of Advertising* 31: 39 - 52.
- Roytburd, L. 2005. "Predictor of Soviet Jewish immigrant's acculturatio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acculturative stress". Phd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Rutter, M., and M. Tienda. 2005. *Ethnicity & Causal mechan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ndhu, D. and B. Asrabadi.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Sengstock, M. C. 2001. "Multicultural families-What makes them work?". *Journal of Clinical and Applied Sociology* 3(1): 1-17.
- Smokowski, P. R., R. Rose., and M. L. Bacallo. 2008. "Acculturation and Latino family process: how cultural involvement, biculturalism, and acculturation gaps influence family dynamics". *Family relations* 57: 295-308.
- Stevens, J. 1992.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Second edition, Erlbaum, Hillsdale, New Jersey.
- Torres, L. 2010. "Predicting levels of Latino depression: acculturation, acculturative stress, and coping".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6(2): 256-23.
- Wei, M., P. P. Heppner., M. J. Mallen., T. Ku., Y. Liao., and T. Wu. 2007. "Acculturative stress, perfectionism, years in the United States, and depression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4): 385-394.
- Worbel, N. H., M. F. Ferrang., and R. W. Hymes. 2009.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in an elderly arabic sample". *Journal of Cultural Gerontology* 24: 273-29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cale to Measure Acculturation Stress of Parents-in-law who have a Foreign Daughter-in-law

Chung, Soon-Dool

(Ewha Womans University)

Park, Hyun-Ju

(PhD candidate, Ewha Womans University)

There is recent recognition that the approach toward family members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problems in multi-cultural families by emerging from typical approach focused on migrant women. While researches have reported serious conflicts and adaptation problems from cultural difference between parent-in-law and foreign daughter-in-law, cultural stress of parent-in-law has not been systematically exami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scale to measure acculturation stress of parent-in-law who have a foreign daughter-in-law. The sample consisted of 266 parents-in-law from three provinces of South Korea. Initially, 16 items were generated based on the existing scale of acculturation stress and they are tested by item-analysis through the descriptive and correlational analysis.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 structure of the scale an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used to validate the scale. By item-analysis, five items were deleted from initial scale items because of redundancy. Findings from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provided the evidence that the scale consists of three factors which are the perception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conflicts from different cultural value, and daily discomfort. Cronbach's α for the scale is 0.86. Multiple fit indices from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dicated that the hypothesized three-factor model for acculturation stress achieved a good fit with the data. Results showed the evidence for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cale for acculturation stress of the parent-in-law who have foreign daughter-in-law. The scale would have potential effects for assessing psychological stress for parent-in-law in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Further implications and limitation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parent-in-law in multi-cultural families, acculturation stress, scale development, validity, reliability

[논문 접수일 : 11. 03. 07, 심사일 : 11. 03. 20, 게재 확정일 : 11. 04. 18]